



대학주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대학, 개선 조치 착수

6개 분야 55건 지적...별도 수사의뢰 건도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지난해 5월 실시된 교육부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우리학교 종합감사 결과가 지난 3월 31일 발표됐다. 이번 감사는 우리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감사가 이뤄진 작년 5월까지 약 3년간의 학교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우리학교는

▲학교법인 ▲조직·인사 ▲교비회계 ▲입시·학사 ▲산학·연구 ▲시설·물품 등 6개 분야에서 총 55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부적절 계약, 지출 상당수

상대 업체 대표는 교원 임용되기도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우리학교가 ▲학생모집 위탁 계약 ▲약품 수의계약 등에서 계약 체결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대학원은 계약학과 학생모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3개 업체에 홍보를 위탁했다. 이들 업체는 직접 모집한 인원 1명당 100만 원을 받았는데, 경영대학원은 위탁업체가 직접 모집하지 않은 이들에 18명에 대한 홍보비를 모 업체에 지급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추천인 란에 홍보위탁업체와 관련이 없는 학생들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이들 두 명은 홍보위탁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등 개인 9명

의 통장으로 받았다. 교육부는 경영대학원 익명의 교원과 두 위탁업체 대표가 2019년 ‘총장 승인 없이 홍콩 및 마카오로 사적여행’을 다녀왔다고 적시했다. 이들 계약은 계약학과가 신설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우리학교가 3개 홍보업체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상당이다.

경영대학원 계약학과는 학생모집 과정뿐만 아니라 학과의 설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계약학과 설치에 교육부

장관에게 먼저 신고되어야 하고, 학생 모집 전형 방법은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교육부 신고 없이 계약학과를 운영해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처 감사팀은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교육부 신고 절차가 누락된 것은 맞다”면서도, “각 산업체와 계약을 맺지 못했을 뿐 영세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주 단체와는 협약을 맺고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8면 ‘종합감사 점검’으로 계속



서울캠퍼스가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한 후 상춘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진=김가연 기자)

개화 시기 맞춰 서울캠 출입 통제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지난 5일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이용이 통제되고 있다. 상춘객이 물리는 벚꽃 개화 시기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

치다. 도보 출입은 정문만 가능하며 차량 출입의 경우 정문은 24시간 개방하고 후문과 남문은 출퇴근 시간인 7시부터 9시,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으로 제한해 개방한다.

▶2면 ‘출입 통제’로 계속

중간고사 비대면 원칙 확정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우리학교 중간고사 시행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시험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장이나 대학원장 승인 하에 대면 시험이 가능하다. 시험 기간은 2주도 캠퍼스별로 대면과 비대면 시험을 분리 시행한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주임은 “양 캠퍼스가 동시에 비대면 시험을 치를 경우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리 시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 시행과 관련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님들이 최대한 본인 수업 시간에 시험 및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변경 시 학생 동의를 얻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면 시험의 경우 모든 출입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발열 확인서를 발급받고 귀가한 후 교강사에게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대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